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

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6.(목) 12:00 이후 사용 배포 2026. 11. 26.(목)

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,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정부

- 한성숙 국무총리, 제1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

- (안건1)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지원·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
- (안건2) 편리한 서비스의 중단없이 안전한 전송체계로 단계적 전환
- (안건3) 정확한 기상정보의 신속한 예보를 통해 대설·한파 등 재난 예방

【관련 국정과제】(안건1) 102.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
(안건2) 25.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
(안건3) 43.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

□ **한성숙 국무총리**는 11월 26일(목) 오전, 정부세종청사에서 **제18회 국가정책조정회의**를 주재했다.

* ❶교원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도 개선 방안(교육부),
❷본인정보의 안전한 전송 추진계획(개인정보위), ❸2026년 겨울철 방재기상대책(기상청)

□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고 있음을 언급하고, "계절이 바뀌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다양해지고 있다"며, "국민의 **안전한 일상**을 지키고, **더 나은 내일**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**계절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필요**하기도 하다"고 밝혔다.

○ 또한, "우리의 **미래**는 **아이들의 배움과 성장**에서 시작하는 만큼, **학교**가 **본연의 역할**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"는 점을 강조했다.

□ 먼저, 첫 번째 안건으로 「**교원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도 개선 방안**」을 논의했다.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**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**으로 **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**가 **크게 위축**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
○ 이에 정부는 **아동은 보호**하면서도 교원이 안심하고 **교육활동에 전념**할 수 있도록 **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아동복지법」 등 관련 법률을 정비**하고, 교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는 최소화하는 등 교원의 **수사 대응 부담을 완화**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그동안 **교사 개인에게 집중**되었던 **민원**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 등 **기관이 책임있게 대응**하도록 하는 등 **교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**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○ 한 총리는 **무고성 아동학대 신고**를 당한 경우에도 교사가 **3~6개월**간 수사를 받게 된다며 "이번 개선방안은 **교권보호 뿐만 아니라** 결국은 **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**임을 국민들께 잘 설명해드려 달라"고 교육부에 당부했다.

□ 다음 안건으로, 「**본인정보의 안전한 전송 추진계획**」도 발표했다. 그간 금융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**자동으로 접속** 후 **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**하는, 이른바 '**스크래핑**' 방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, **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**과 **오·남용에 대한 우려**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
○ 특히,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, **754개 사업자**가 총 **129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**를 대상으로 스크래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는 사업자당 **평균 4.2개**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으로, 중복을 포함한 총 스크래핑 건수는 **3,164건**에 달했다.

○ 이에, 정부는 국민의 **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**하면서 기존 스크래핑 방식에서 **안전한 전송체계**로 **단계적으로 전환**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. 우선, 사업자와 공공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건은 일정 기간동안 **약속된 방식으로 스크래핑을 유지**하도록 한다. 이후, 개인정보 전송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**API 등 적절한 전송수단**으로 단계적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**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안전기준**을 제시하고,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, 국민의 **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해소**와 산업계의 **데이터 활용 생태계 활성화**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

□ 마지막으로, **「2026년 겨울철 방재기상대책」**을 발표했다. 지난 11월 23일 발표된 겨울철 기후전망에 따르면, **올겨울**은 **엘니뇨**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**평균기온**이 **높고 강수량**도 **많을 것**으로 예상된다. 특히, **지역적인 대설과 갑작스러운 한파** 등 **위험기상 발생 가능성**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.

○ 이에 정부는 **6개 주요 분야***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상세한 **위험기상정보**를 제공하고, **겨울철 재난 피해 예방**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.

* 6개 분야 : △대설 피해예방 △한파 취약계층 보호 △해상 특보구역 세분화
△상세 중기예보 △신규 날씨지도 △도로·항공 안전정보

○ 우선, **대설에 대한 감시·예측체계를 고도화**하고, 인명·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대설 관측 시 강설 실황과 유의사항 등을 담은 **대설 안전안내 문자**를 **전국으로 확대 발송***한다.

* ('25년 시범운영) 수도권, 충남, 전북 → ('26.11.23~) 전국

○ 아울러, **디지털 중기예보**(5~10일 후)를 **보다 상세하게 개편 시행***하여 국민들께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* ▲(시간) 5~7일 후 기존12시간→개선3시간, 8~10일 후 기존24시간→개선6시간
▲(공간) 광역 시·도 → 5km 해상도
▲(강수) 4단계('거의 없음-조금-보통-높음') 및 전일 예보 대비 변화 경향(증감) 제공

○ 이외에도, 13개 고속국도 노선*의 **도로살얼음에 대한 실시간 위험정보**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제공('26.11.13~'27.3.15)하고, 해양 특보구역 세분화, 항공 예비특보 신설 등 **기상서비스도 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* 중부내륙선, 서해안선, 경부선, 중앙선, 호남선, 영동선, 중부·통영대전선, 서산영덕선, 순천완주선, 무안광주대구선, 새만금포항선, 호남선의 지선, 남해선

□ 한 총리는 “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**위험을 미리 살피고 예방**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, “각 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한 대책들이 **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**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※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김지현 (044-200-2056)
		담당자	서기관 박주언 (044-200-2535)
담당 부서 <교권>	교육부 교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장세은 (044-203-6480)
		담당자	연구관 김주숙 (044-203-6487) 사무관 민동영 (044-203-6494)
담당 부서 <본인정보 전송>	개인정보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	책임자	과 장 김은경 (02-2100-3170)
		담당자	사무관 장주영 (02-2100-3186) 사무관 박선업 (02-2100-3174)
담당 부서 <방재 기상대책>	기상청 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성묵 (02-2181-0492)
		담당자	사무관 김기석 (02-2181-049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